

內藏山 국립공원에 산불 官民協同으로 3時間만에 鎮火

[11. 26일 아침 內藏山支部 郭竣吉事務局長 急電 및 11. 30일 書面報告] 11월 25일 밤 6 시경 내장산 국립공원 서래봉 칠문능선(백련암과 원적암사이 사랑의다리계곡)에서 산화가 발생, 약 6천m²의 임야를 태우고 3시간 30분만에 필사적인 관민의 진화작업으로 소화됐다.

이 산불을 끄기위해 번영회를 비롯한 집단상가주민과 공원관리소직원 및 본 공원협회지부회원, 의용소방대, 민방위대원, 소방서원, 정주시직원, 정주경찰서원등이 긴급출동, 필사적인 진화작업에 의해 단풍나무 약 1천그루, 잣목 약 2천그루를 태우고 진화된 것이다. 경찰은 화인을 등산객의 담배불로 추측하는 한편 계속 수사중이다.

井州市長과 內藏寺住持스님 鎮火한 住民찾아 오찬과 金一封치하

한편 장운상井州市長은 26일정오 내장산집단상가주민, 번영회원 및 본회내장산지부회 회원일등을초청, 오찬을 베풀고 진화작업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內藏山 李香峰주지스님은 금일봉을 보내왔었다.

保護地区内の 淨化에 앞장 「비자나무」苗木保全도 감시키로

또한 동지부는 빈축을 사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인 원적암 계곡과 금선계곡에서 성수기에 신도와 회원이 빙자한 불량잡상들이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 이곳 상가번영회와 합동으로 손부족인 관리사무소를 도와 정화운동도 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원들의 철저한 감시로 귀중한 비자나무 묘목의 도난을 예방하는데 힘을기우리기로 했다.

自然公園
愛護標語

山은 우리에게 맑은 空氣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資源이다.

金烏山支部 임시총회열고 團畵

冬季조수보호 · 山火防止시달 등도

[金烏山支部發] 11월23일 하오 2시부터 회원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불설치운영규정10조에 의한 임시총회를 이곳「금오산도립공원자연학습원」에서 개최했다.

權寧二지부장은 그동안 각회원들의 활동상황을 종합보고하는 한편 금오산의 정화와 보존을 위해 더한층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당부했다. 이날현재 신규입회가 확정된 회원은 9명에 이르렀는데 산악회원들중 22명도 참여할 뜻을 밝혀 연내에 이들 전원을 본회에 가입시켜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는 본회서 시달된 겨울철 야생조수보호 및 특히 山火방지를 위해 회원들이 술선실천하며 入山者들에게 철저한 계몽활동을 펴기로 했다. 화기가득찬가운데 만찬을 하면서 회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교환과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七甲山 朴支部長이 나트롬燈 설치

本會七甲山 朴七星 支部長은 지난 12월 초순 七甲山에 자리한 면암 최익현 선생의 동상주변에 자비를 들여 나트롬 등 3개를 설치하였다.

周王山支部 산불예방운동 회원단합과 정화운동차원

[12. 9. 周王山支部 發] 주왕산국립공원지부(지부장 沈珽澤)는 12월초순에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정화대회와 회원친목 및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대통령선거기를 맞아 회원들의 사정에 따라 선거후에 실시키로 연기했다.

지부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의 통일된 작업모듬을 이미 만들고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위한 일정을 조사하고 있다.